



LIG D&A, 수출 우수 협력사에 지원금 23억 지급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수출 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며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LIG D&A는 지난 21일 수출사업에 기여한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출성과 공유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금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LIG D&A 차상훈 기업지원본부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IG D&A



윤호영 카뱅 대표, 불법사금융 예방 캠페인 참여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카카오�뱅크는 윤 대표가 서민금융진흥원이 기획한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뱅크



KCC, 서초소방서와 응급처치 교육 실시

KCC가 임직원의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안전한 기업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25일 KCC에 따르면 서울 서초소방서와 협력해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CC 직원들이 서초소방대원의 지도 아래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다. /KCC



SH, 상생협력기금으로 중소기업 ESG 역량 키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협력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SH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왼쪽 5번째부터)SH 황상하 사장, 대중기협력재단 변태섭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중기협력재단



BBQ, 장애인 복지시설 찾아 보양식 전달

제너시스BBQ그룹은 장애인 복지시설 ‘엘리엘동산’에 삼계탕 110인분과 수박 10통을 전달하고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시설 ‘엘리엘동산’을 찾은 BBQ 임직원들의 모습. /제너시스BBQ그룹

LG전자, 메트로폴리탄 명화 품고 ‘아트TV’ 영토 확장

갤러리 플러스서 명화 100점 공개 플랫폼 등 TV 수익구조 전환 가속

LG전자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트 콘텐츠 서비스 ‘LG 갤러리 플러스(LG Gallery+)’에서 미술관 소장 명화 100여점을 제공한다. TV 판매 이후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 사업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트 콘텐츠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5일 LG전자에 따르면 이번 협업으로 추가되는 작품에는 에두아르 마네의 ‘아르장티유 정원의 모네 가족’, 윌리엄 메리트 체이스의 ‘해변에서’, 세브린 로젠의 ‘꽃과 과일이 있는 정물’ 등이 포함됐다. LG 갤러리 플러스는 독자 스마트TV 플랫폼 webOS에 탑재된 서비스로, TV 화면을 디지털 캔버스로 활용해 실내 공간을 연출하



LG전자가 아트 콘텐츠 서비스 ‘LG 갤러리 플러스’에서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명화를 제공한다. /LG전자

도록 설계됐다.

LG 갤러리 플러스는 지난해 8월 출시됐다. 무료 라이트 버전은 150개국 이상에서 제공되며, 프리미엄 콘텐츠를 포함한 정식 버전은 한국과 미국, 유럽 등 23개국에서 webOS페이를 통한 월 구독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국 내셔널갤러리 런던,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협업한 작품에 사치아트의 현대

미술, 게임 일러스트, 영화 포스터, 자연 경관 사진을 더해 5000개 이상의 콘텐츠를 확보했다.

하드웨어 라인업도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CES2026을 앞두고 미술관 큐레이터와 협업해 색과 밝기를 조정하는 ‘갤러리 모드’를 적용한 LG 갤러리 TV를 공개했다. 이어 5월에는 올레드 에보 AI W6 월페이퍼 TV와 올레드

롯데백화점서 만나는 현대미술

내달 23일까지 ‘롯데아트워크’ 회화·조각 등 다양한 장르 전시

롯데백화점이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본점과 잠실점, 인천점에서 ‘롯데아트워크’를 열고 총 6개 전시를 선보인다.

롯데아트워크는 미술 전시와 문화 예술 행사가 집중되는 9월을 맞아 백화점에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아트 프로젝트다. 회화부터 조각, 사진, 디자인까지 다양한 장르의 전시로 구성했다.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개인전도 열린다.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된 심문섭의 개인전은 9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잠실점에서 진행된다. 김상열 개인전은 8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본점, 권오상 개인전은 같은 기간 잠실점에서 열린다. 인천점에서는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김우진 개인전을



‘롯데아트워크’ 기간 동안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인천점에서 선착순 증정하는 ‘롯데아트워크 기프트팩’ /롯데쇼핑

선보인다.

본점 9층에서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아티스터리 요시다 유니와 사진작가 김영준이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협업한 ‘페이스 투 페이스’ 전시가 열린다.

조각 전시도 마련했다. 잠실 에비뉴엘에서는 권오상의 ‘존재의 조각들展’을, 인천점에서는 김우진의 ‘누구에게나, 유토피아展’을 각각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

현대그린푸드, 충남 농산물 500톤 소비

‘모두의 상생’ 첫 시범사업

현대그린푸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첫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나선다.

현대그린푸드는 충청남도청과 함께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는 기업과 지역 농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서산 양파 280톤, 부여 쌀 200톤을 포함해 밤·은행·대추·참쌀 등 충남산 농산물 약 500톤을 매

에보 AI G6, 갤러리 TV AI로 구성된 아트 TV라인업을 출시하고 12월 31일 까지 구매 고객에게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전략 전환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분기 MS사업본부 매출은 5조 1100억원, 영업이익은 2190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4%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4.4%에서 4.3%로 전환했다. LG전자는 올레드와 QNED, 초대형 TV 등 프리미엄 비중 확대와 webOS플랫폼 매출 증가를 개선 요인으로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 규모도 커졌다. 앞서 LG전자는 webOS 플랫폼 사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40% 성장해 2024년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LG 채널은 33개국에서 4000개 이상 채널을 운영 중이다.

/구영남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현대그린푸드, 충남 농산물 500톤 소비

입한다. 이를 전국 650여 개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25일에는 서산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임직원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충남산 농산물을 활용한 ‘충남의 맛 연 앞밥’을 제공했다. 이후 카라멜라이징 양파 돼지고기볶음, ‘양파 카레라이스’, ‘양파채워짐 크림파스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인다.

전국 사내 카페 140여 곳에서는 충남산 밤을 활용한 ‘밤 미숫가루’와 건강 차 ‘도라침’을 판매하고,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베즐리에서는 서산 쌀가루를 활용한 마들렌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난 24일 부천 세종병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두번째줄 왼쪽 다섯번째부터)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신지아 선수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캄보디아 환자 및 가족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국민銀, 캄보디아 심장병 환자 치료

6명 국내 초청해 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24일 캄보디아 심장병 환자 6명을 국내로 초청해 무료 수술과 회복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지원사업’은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수술 기회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대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이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 구세군과 함께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3명의 어린이에게 건강한 심장과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해왔다.

이날 부천 세종병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KB금융그룹이 후원하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신지아 선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아들에게 학용품 세트와 책가방, 인형 등을 전달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특히 올해는 사업 15주년을 맞아 과거 수술 지원을 받은 어린이들의 성장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치료를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가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장기간 이어온 지원의 의미를 되새겼다.

/안상미 기자 smahn1@